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94) 청도 운문산 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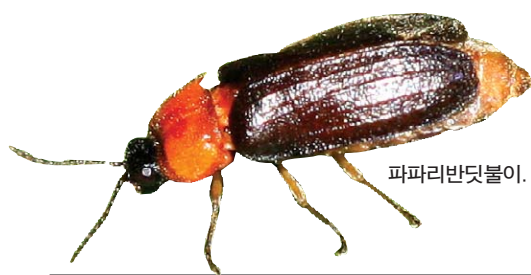
사찰의 설화는 픽션이 강한 신화와는 달리 사실성(史實性)이 매우 높다. 창건설화에는 역사적 인물과 함께 실제 우리 생태계의 동식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당시의 생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케 해준다. 까치나 파랑새는 사찰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조류이다.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인 청도 운문사 창건연기설화에도 까치가 등장한다.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에 모두 까치가 등장하여 중창할 절터를 점지해준다. 그 전에 신승이 초창했다는 '대작감사(大鵲寺)' 이름에도 까치 '작(鵲)' 자가 들어가 있다. 까치는 마을 주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이다. 따라서 신승이 운문사를 창건할 당시 이미 인가가 많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유추케 해준다. 운문사가 자리한 운문산은 해발 1240m의 가지산(加智山)은 '까치'의 이두(吏讀)로 된, '까치산'을 한자로 음역한 이름이다. 운문사에서는 운문산을 '호거산(虎踞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운문산중의 암벽(虎踞臺)이 웅크린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검은머리방울새.



운문사 처진 소나무.



파파리반딧불이.

운문사로 들어가는 길은 청도와 경주에서 이어진다. 운문호는 어느 길로 들어가도 만나게 되는 인공호수이다. 가까이 있는 큰 절에서 운문호에다 붉은귀거북을 놓아주는 방생법회를 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운문사는 소나무숲이 좋은 절이다. 소나무숲이 매표 소부터 운문천을 따라 1km 가량 절까지 이어져 있다. 군락을 이룬 소나무들은 높이 20-30m에 수령이 대략 100년 안팎인 노송으로, 전형적인 우리 육송이다. 소나무숲을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양분하고 있다.

숲속 작갑교 가까이에 느티나무와 전나무 연리목이 있다. 수령이 백년이면 넘는 두 나무가 줄기 밑동부터 열까안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완벽한 연리목은 흔하지 않다.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면 좋은 볼거리가 될 터.

소나무 군락이 끝나면 왕벚나무 가로수와 낮은 담장이 경내로 안내한다. 운문사 전각들은 모두 평지에 좌정하고 있다. 흔히 산중절에서 보이는 석단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거의가 운문산을 향해 남향을 하고 있어서 전각 뒤쪽이 허하다. 허한 뒤통수를 아까 지나온 소나무숲이 병풍이 되어주고 있다.

봄이 되면 사중에서 소금단지를 새로 묻는다. 화마를 물리치기 위한 오랜 벽사의 풍습이다. 작갑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 앞에도 산중기도 회향날에 맞추어 소금을 하얗게 뿌린다. 소금을 뿌림으로 해서 비로소 운문사는 화마가 범접할 수 없는 해인(海印)의 절이 되는 것이다.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처 담계 경내를 아름다운 화목 중심지로 조경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지지 않는 꽃밭이다. 경내 한가진 곳에는 20여 평의 온실을 두고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다. 청풍로 앞에는 회화나무를 열석하여 여름철 그늘을 만들어 지표면의 복사열을 막아주고, 육화당 앞 빨래간조장에는 향나무를 심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채경당 앞 골짜기에는 능소화를 울려 여름이면 꽃기둥을 만들고, 봄이론 앞 골짜기에는 사철 푸른 철사철나무를 울려서 조경했다.

경내 조경수로는 역시 천연기념물인 처진소나무가 0순위이다. 가지가 밑으로 처져서 우아하면서도 자애로운 보살의 수관을 보여준다. 현재 가지가 넓게 뻗어 갈라질 것을 염려해서 받침대를 세워 두고 있다. 400년 노송인데도 노익장을 과시하듯 솔방울들이 특산하다.

죽림현으로 건너가는 극락교 아래로 운문천이 흐른다. 하상은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갈과 모래가 많이 나타난다. 운문천 곳곳에 깊고 맑은 소(澗)가 있는데, 전설의 이목소도 그 중 하나이다. 햇볕이 따사롭고 물 흐름이 정제된 맑은 물속에는 벌써 해갈이 돌아왔다. '물끼기'라고도 부르는 해갈은 한해살이 녹조식물로, 머리칼과 모양의 사상체(絲狀體)로 구성되어 있다. 깨끗한 물일수록 더 성장하고 양도 많아서 운문천 수질의 지표종으로 삼을 만하다. 운문사 지역에서는 버들치, 갈겨니, 밀어 등이 우점종으로 관찰된다. 물이 차서 그런지,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군평은 주변 농경지는 물론 운문사 사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평지이다. 현재 일부는 연못과 정자가 있는 사찰 소유 휴양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원에는 다양한 우리 화목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작은 수목원을 연상케 해준다. 식물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자연학습장으로도 훌륭하다. 스님들에게 식물과 조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공간으로서도 훌륭하다.



운문천 해갈.

겨울잠 깬 개구리 '봄 기지개'

운문천 따라 늘어선 노송·희귀종 처진소나무 볼거리
북방식물 노랑무늬붓꽃 사리암 주변에서 관찰되기도

사이사이에 과일나무를 배치하여 가을에 열매를 완상하도록 한 것도 비구니스님들의 재치일 것이다. 금반향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를 원산지로 한다. 높이는 약 20m까지 자라며, 나무줄기는 붉은 빛을 띤다. 잎의 일부가 노란 금색을 띠는 것을 금반향나무, 은색을 띠는 것을 은반향나무라고 한다. 사찰조경에 쓸 만한 나무로, 번식은 열매를 발아시켜서 묘목을 얻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왕참나무를 비롯해 태산목, 중국단풍, 풍년화, 나무수국, 독일가문비, 백송, 일본목련, 나무수국, 은단풍, 서양호랑이사나무, 금송 등 외래 조경수가 너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초본류의 경우도 원예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리암 주차장까지는 포장도로가 나왔다. 1991년부터 휴식년제를 두어서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출입을 제한해온 덕분에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었다. 특히 노랑무늬붓꽃은 북방식물로, 한동안 팔공산이 남한계로 알려져 왔으나, 사리암 주위에서 관찰되어 학계에 새롭게 보고되기도 했다.

운문사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은 식재된 소나무와 잣나무 군락이 있다. 모두 20년 안팎의 수령으로 보인다. 그 위로는 참나무류 중심으로 낙엽활엽수가 혼효를 이루고 있다. 노거수들은 수령 50

년 안팎의 굴참나무들이 손꼽히는데, 굴피를 채취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봄눈이 아직 운문산 종턱을 덮고 있지만, 개울가는 완연한 봄이다. 고인 물에 한국산개구리가 벌써 겨울잠에서 깨어나 여기저기 말간 알을 낳아놓았다. 산개구리는 개구리 가운데 가장 먼저 겨울잠에서 깨는 종이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간에 꼬리치레도롱뇽도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운문산반딧불이는 1931년에 운문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채집지명을 증명으로 했다. 파파리반딧불이와 같은 종으로 판명되어 먼저 기록된 '운문산 반딧불이'로 통일되었다. 우리나라 7종의 반딧불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다. 5월이면 운문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운문사와 산내 여러 암자 주변에서 관찰되는 조류로는 텃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운문천 계곡에는 물가마귀가 서식하고 있다. 3월은 겨울철새와 여름철새가 리턴메지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여름철새는 아직 보이지 않고, 검은머리방울새 등 몇 종의 겨울철새만이 눈에 띈다.

사리암 주변 바위에 검은머리방울새가 무리 지어 겨울을 나고 있다. 검은머리방울새는 머리는 검은색, 몸통은 황록색과 회녹색으로 치장한 예쁘고 양

증맞은 새이다. 침엽수가 많은 사찰 주변에 살면서 '주-잉, 주-잉' 하는 울음소리로 식막하고 썰렁한 겨울산을 포근하게 해준다.

곤충박이 몇 마리가 사리암에 불박이로 사는데, 기도객들이 손바닥에 땅콩을 얹어놓으면 손바닥에 내려앉아 땅콩을 물고 간다. 이 곤충박이를 탐방객들은 '깡돌이'라고 부른다.

사리암 계단길에 고라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시멘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고라니가 지나가면서 남긴 발자국이다. 주민 청문초에 의하면 가끔 멧돼지가 큰절 주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운문천에 서식하는 수달이 장군평 공원 연못에 출현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내원암은 새로 요사채를 지으면서 오래된 옛 건물을 뒤로 옮기는 복잡한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쇠뿔로 집재를 얹어 묶어 기증기로 들어서 통째로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북대암은 운문사에서 북쪽으로 마주보는 지룡산 암벽 아래 자리하고 있다. 폐기와를 이용해서 비탈에 층층이 화계(花階)를 만든 것은 모두 비구니스님들의 손길로 태어난 것들이다. 경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층층이 가로로 놓은 것도 이상하다.

북대암은 운문사 지역에서는 가장 양명한 곳이다. 그래서 겨울을 성중으로 난 나무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사과나무겨울가지나방은 1년에 딱 한번, 봄꽃보다 먼저 나타나는 봄의 전령사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라 될 수 있는 효타비결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효타비결 전수반 모집 (스님에 한함)

※ 좋은이름 지어드립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깨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 적용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운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 개명, 작명,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명이 어렵거나 궁극한 점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051)524-9406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대표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원불보장